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1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5호

발행인 : 박 상 호

2. 성시화 2005년 10대 뉴스
4.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정필도목사)
7. 성령으로 세워져 부흥하는 춘일교회
9.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성탄절

성탄절 문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이 정 배 목사(온의감리교회)

성탄절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현재 성탄절에 대한 인식이 교회절기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공휴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절기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공휴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일반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일반인들에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앉아 있고 연말연시의 분위기와 더불어 한해를 마감하는 낭만적인 어떤 날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행사를 통해 교인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벤트 총집결의 날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화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형성된다. 어떤 과정과 의도로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성탄절문화가 만들어졌는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현재 성탄절의 문화가 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물론 일반 사회에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간극을 좁히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문화적 간극이 큰 만큼 좁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회는 성탄절을 통해 열이 농아야 한다. 일반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일반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같은 성탄절을 두고 다르게 형성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여 큰 기독교문화의 시간적, 공간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성탄절에 벌이고 있는 개교회의 개별적 행사들을 큰 단위로 묶을 필요가 있다. 공간적으로 작은 여러 개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굵직한 행사들이 연합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시간적으로도 25일 하루만의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 지속되는 연속성을 가진 행사가 필요하다.

마틀 맥루언 언급했던 것처럼 미디어는 권력이다. 성탄절 행사는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동원하는 선교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 문화 예술의 전 장르를 총현시켜 다각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집중되고 연속적일 때, 사람들은 성탄절 문화의 힘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어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주일을 침묵으로 지내다 마지막 날 일순간 온힘으로 소리를 내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힘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탄절은 교회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한 번에 힘 있게 이어지는 기독교 문화 표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



이달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강원도의 혁신도시 선정문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두의 깊은 이해 속에 잘 지정되며, 강원도내에 서로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할 10여개의 시군마다에 갈등과 경쟁의 체제가 아닌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인격적인 지자체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강원도 시군들이 균형발전 되도록.

· 새로 선임된 모든 기독교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독교연합회와 교역자연합회 장로교연합회 교경연합회 등 대부분 새로운 임원으로 새 진영을 갖추었다. 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비전을 품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나아가 춘천의 성시화와 복음화를 이루는 기관들로 더욱 성숙 · 발전되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 성탄의 계절에 사랑과 복음이...

아기예수의 탄생을 통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위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성탄이 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과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 세계의 곳곳마다 나아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섬기시는 자녀들마다에 부흥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모두들 기쁨과 생명의 은총 속에 보호받도록.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특 집

성시화 2005년

"깨끗한 춘천,



■ 신년 교례회



■ 십자가 대행진



■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



■ 아버지학교

2005년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춘천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치뤄졌다.

1. 신년교례회로 믿음의 시작을 하다.

1월 3일 신년교례회 예배가 춘천원드비전에서 은혜 속에 드려졌다. 새해 신년을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 교계의 지도자들과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밝아온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새해가 되길 소망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회장 유진형목사(안디옥교회) 수석부회장 박상호목사(제일장로교회) 교역자부회장 김유식목사(한신교회) 정보부회장 임은석장로(순복음춘천교회) 총무 유호선목사(동춘천교회) 수석부총무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 부총무 송문식목사(은성교회) 서기 이주호목사(소양제일교회) 부서기 김수복목사(기성교회) 회계 김칠주장로(창대교회) 부회계 마철규장로(제일장로교회) 감사 지용찬목사(은혜교회)와 김태권장로(동부교회), 신임 임원들이 구성 되었다.

2. 한반도 십자가 평화대행진

부흥절을 맞이 한반도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전국을 휘돌은 십자가 대행진에 춘천은 홍천연합회를 통해 11일 십자가를 인수받아 3월 12일(토)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을 위한 한반도 십자가평화대행진'을 전 교회의 성도들이 약4천여 명이 모여 발대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5개 대대로 나눠 십자가를 메고 시민공원에서 도청까지 시가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도청에 함께 모여서 마침 기도회를 가졌다. 특별기도를 통해 "깨끗한 춘천, 겨룩한 춘천"을 소망하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할렐루야 심창을 불렀다. 모든 행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춘천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 속에 시종일관 은혜롭게 이어졌다.

3.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

강원도 총 기독교연합회에서는 5월 28일(주일) 오후1시30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횃불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약 12,000여명의 강원을 사랑하는 18개 시·군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민사랑 은등본부' 발족식을 갖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강원아리랑 힘찬을 시작으로 70, 80년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2부 '백두의 봄꽃, 세계의 빛으로'으로 진행됐다. 임신영 강원기독교연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가 설교를,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간증을, 김진선 도지사, 한승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허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유종수 춘천시장과 유진형 연합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3부 'MY LOVE 페스티벌'은 MC몽, 마야, 존차, 하하, 조해련, 김조한, 서문탁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공연을 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회장 임신영목사, 사무총장 오승용목사, 실무간사 유호선목사, 조영춘목사 등이 수고하였다.

4.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성황리에 시작되다.

아버지 학교

춘천에도 성시화를 위한 가정회복은동의 일환으로 아버지학교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제1기를 시작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은영위원장 채명조집사(순복음춘천교회), 운영위원 치형협장로(춘천중앙성결교회) 김종원안수집사(춘천중앙성결교회) 김현안수집사(순복음춘천교회) 고성언간사(순복음춘천교회) 김승구권사(강촌감리교회) 최기용집사(춘천중앙장로교회) 정희대집사(춘천제일장로교회) 석광흔권사(석사감리교회)



춘천 1기~4기까지 약 450여명의 수료자가 나왔고, 춘천5기가 2006년 2월25일~3월25일 매주 토요일 석사감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인원 105명(선착순)

어머니학교

제1기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200명이 참여하여 깊은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제2기는 2006년 2월22일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개설팀장 김희숙권사, 총무 민병임집사, 합기팀장 안금자권사, 편지팀장 오미자집사 등이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5. 2005 춘천선교대회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가 9월 25일(주일) 저녁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막이 활짝 열렸다. 매스컴을 통해 천속해진 장경동 목사[대전증문침례교회]가 강사로 수고한 이번 부흥성회는 석사감리교회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에 배로 드려졌다. 연인원 약 6만여 명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교회에 예배실 뿐만 아닌 부속실 모두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가득 메워 그 열기를 더하였다. 부흥성회는 강사 특유의 말씀 속에 담긴 해학적 해석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진지한 헌신과 감격이 넘치는 집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선 김춘배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흰눈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내 이웃에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Habitat 이사님들, 지회 사무국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행무한 땀에 사랑의 집이 건축되어 2005년 11월까지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선물로 전달되어 소망의 마음에 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abitat 주택, 사랑의 집은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웃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54-0009

♡ 후원계좌 : 농협(예금주: 사랑의집짓기 춘천지회) 203-01-510404

10대 뉴스

거룩한 춘천"

었다. 특히 집회 장소에 못 들어온 성도와 시민들이 약 일천여 명을 상회 할 정도로 성황리 진행이 되었다. 또한 춘천지역 목회자 축구단인 포이맨(회장 지용찬목사 춘천은혜교회)은 화요일 오전 8시부터 공지천 잔디구장에서 '목회자 친선축구대회'를 펼쳤다. 특별히 장경동 목사도 함께 하여 목회자들과 화기애애한 친선의 시간을 가지며 열기를 더했다. 28일(수) 오전10시 카페 크리스챤에서는 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기득문화를 위한 성시화 포럼'이 열렸는데, 기득문화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한균, 최상도, 이정배 목사, 박의범장로가 기득문화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후 주제토론을 하였다. 또 29일(목) 오후7시 등부교회에서는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제가 열렸으며, 10월 8일(토) 오후6시 춘천문예회관에서는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를 통한 장학금전달의 시간을 끝으로 선교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춘천의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는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목회자 중심의 집회와 선교단체중심의 집회등으로 나뉘어서 열리게 된다.



6. 춘천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

강원도내의 혁신도시를 통한 행정도시 유치문제로 인해 약10여개 시군이 치열한 각축전중 춘천도 유치를 위한 각종 노력의 경주하던 중 신정위원의 특정도시 지원의 편파성에 의한 시민들의 의혹과 당혹감으로 원성이 높아졌다. 이때, 연합회는 시민대표들과의 만남과 회의를 통해 춘천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있게 확인한 후 "혁신 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합의, 전시민 · 종교 · 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춘천범종교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유진형목사)를 결성하여 10월 28일(월) 오후 7시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약 6천~7천의 시민들과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불교대표와 천주교평신도대표 등이 함께 하는 뜨거운 시민집회가 2부로 진행되었다. 최등칠씨의 사회로 현숙 최영미 현칠 등의 공연과 함께 성명문를 공포한 후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도청까지 대대적인 촛불시가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은 "춘천은 상수원 보호정책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인한 무대집 푸대접속에 지금까지 왔다", "행정기관을 도 행정의 집결지인 춘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강원도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자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도청에서 결의문을 전달하고 애국가와 구호를 제창하며 그 열기를 더했다. 그 후에도 혁신도시 문제는 차기의 기득교연합회 임원들이 주도한 11월27일 연합예배를 통해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 열기를 더해갔다.



■성시화 포럼

7.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춘천방문 &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1일 성회

10월 28일(금) 성시화운동 신임총재이며 전CCC총재인 김준곤목사와 함께 서울흘리클럽 전용태, 양인평장로를 비롯한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관련 본부장과 책임자들 약 60여명이 춘천을 방문하였다. 류종수 춘천시장, 최현섭 강원대총장, 조남진장로 등 증요인사들과 함께 만찬증 정담을 나눈 후, 에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등 춘천의 명소들을 관광하였다. 또 김준곤목사와 전용태, 양인평장로는 오후 장로연합회 총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전국의 홀리클럽 본부장들과 성시화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나눈 후,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특별성회"를 열어 김준곤 목사의 말씀, 전용태 장로의 간증을 통해 영성의 회복 시간을 가지며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김주환목사는 드려진 헌금 전액을 성시화본부에 기증하였다. 후에 대표들은 당림리 샬롬하우스로 자리를 옮겨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등 감격스런 시간을 보냈다.


■춘천혁신도시 시민궐기대회

8. 춘천선교세계관학교인 MPS를 통해 준비된 일꾼들의 훈련.

"열방을 내 가슴에 품게 하소서!", "MP를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자!"

2001년 베드로선교센터에서 개교한 춘천선교세계관학교는 매년 봄, 가을 12주차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MP인들을 통하여 춘천에 영적 바람을 일으켜 왔다. 이 학교는 ①선교의 성경적 관점, ②선교의 역사적 관점, ③문화적 관점, ④전략적 관점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2005년에도 8기(3.12.~5.28.)와 9기(9.10.~12.3.)가 진행되어 각각 52명과 49명의 준비된 일군들이 수료하였다.


■전국성시화운동본부 춘천방문

9. 경영아카데미 춘천에서 첫 시작을 이루다.

기독경영인들은 과연 어떤 기업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가 등을 위한 필요성을 위해 한국최초로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한 교육을 위해 1기 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여 9월22일~12월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등부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도교수는 강원대 박의범교수, 상임총무 김지현 집사(엔부이사장011-9057-3946)로 지속적으로 바른 성경적 경영론을 바르게 교육하는 기관이 되길 소망해본다.


■춘천선교세계관학교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 · 5 · 6 · 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6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매일교육) · 피아노 · 미술 · 체육 · 음악 · 수학 · 과학특별교육 · 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 · 프로젝트 수업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장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 영성의 푯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 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기죽 · 모피 · 예복전문
대표 전 순 천
위치 :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 252-7262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시간에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이신 정필도 목사님(부산 수영로교회 담임)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과 수영로교회를 방문하여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배경과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웁헤로 수영로교회를 개척한지 30년이 됩니다. 부산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부산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군 근목으로 근무하면서 부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장병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요. 2년 동안의 군목생활을 마치면서 교회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산 수영로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부산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님에게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시오! 안믿으시면 부산을 떠나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부쳤습니다. 부산복음화를 위해서 부산지역의 300여 교회의 협력을 받아 5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를 여러번 개최해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10명 정도가 모이는 사랑방 1만개를 조직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1000여개의 사랑방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역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성시화운동이 시작되고 5년 전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제가 본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늘 가지고 있었고, 하던 일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등역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성시화운동의 후원자중, 70~80%가 수영로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와 수영로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활동하니까 "부산성시화운동은 수영로교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들리더라구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산 성시화는 네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김당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을 섬기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부산시민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실행하고 있는 "예수탄생 사랑의 대행진"입니다. 부산시 16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랑의 대행진을 합니다. 가운을 입은 목사님 기수단이 선두를 이끌고, 경찰악대,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성도들의 가장 행렬이 뒤를 따릅니다. 행진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만포 사랑의 씸 나누기"로 마무리 합니다. 또한 부활절에는 십자가 대행진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부산에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문화가 뿌리내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영로교회에서는 15층 선교관을 건축할 계획이 있는데요. 선교관이 완공되면 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성악가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인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기독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문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기독문화가 세상문화를 선도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문화를 부산지역에 합성화시켜서 관광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파워를 가지고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가진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조: 2006년에 제2회 세계성시화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도 기도하고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산에서 세계성시화선교대회를 계획하기 전에, 지나간 성시화대회나 행사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지역대표들을 초청해서 세계성시화선교대회 준비기도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준비모임을 통해 부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시화대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성시화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진 통일된 성시화 개념과 전략을 기초로 해서 성시화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들을 문서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변화할 수도 없고, 변화되어서도 안되지만, 시대마다 성시화운동의 전략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운동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면서도 시대적 환경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다음세대에게 성시화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를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자원들이 아직도 풍부합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1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수명의 교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아, 유년, 학생, 청년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야말로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조: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로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복지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만 보면 말이 일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기자들이 모였을 때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잘못 인도하는 범인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왜 좋은 것들도 많은데 잘못된 것만을 말하고 보도하느냐? 모든 신문, 메스컴들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좋은 모델, 감동을 주는 것들을 자꾸 말하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좋은 사람, 좋은 것들만 남게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좋은 모델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직분은 즉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신약에 보면, 복음은 은혜의 직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따져서 즉이면 안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즐겁고, 서로 만나면 반가워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죄인들도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부, 말기 암 환우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등등. 능아들을 위한 교사만 해도 3백명 정도가 있어요. 앞으로도 가능한한 부산시민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다양한 구제사역과 선한 일들을 힘써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강팍해져서 빼딱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대통령이 나와도 제대로 징치를 할 수없어요. 저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안되요. 이것은 본질상 영적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적인 위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요.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는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실 때 반드시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넘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이어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민족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 마지막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심을 버리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라" 하시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저 많이 기도하며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바쁜 시간에도 성심껏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시: 2005년 11월 14일, 부산수영로교회
진행: 조영춘, 글정리 정재호, 사진: 김

국내 선교지 탐

제암리교회와 수촌리교회

한 남 수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우리 춘천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박상호) 국내 선교부(부장 김진현 장로)에서는 연중 사업의 하나로 연 2회에 걸쳐 국내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는 믿음의 선현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우리 후손들에게 산 교훈을 보여주고 본받아 살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계승시켜 나가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선교사로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기미년 3.1만세운동에 수많은 성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독인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다.

1919년 기미년의 3.1운동에서 개신교는 천도교-불교와 함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독립만세시위 중 상당 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으로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주도했던 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해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화성군의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인 것이다.



일제 경찰은 3.1만세운동이 있은 후, 한 달여가 지난 1919년 4월 15일 오후 제암리교회에 신자들을 모이게 한 후 문을 폐쇄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4월 5일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암리교회 신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제암리 사건의 배경을 거슬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서신, 송산 지역에서도 주민 1천여명이 사강에 모여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일동안 독립운동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 야마구찌가 피살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또다시 3월 30일 발안 장터에서 주민 1천여명이 모여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경찰관주재소, 우체국 등을 방화하였고, 이때 김경태와 이정근 의사 등이 순국했으며 일본인 43명이 삼계농막으로 피난가기도 했다.

4월 1, 2일에 개죽산 봉화를 신호삼아 진례산, 천덕산, 당제봉, 쌍봉산, 보금산, 무봉산, 남산 등에 봉화를 올려 만세운동이 화성지역 전역으로 전개되자 4월 4일 일본군 제20사단 39여단 78연대 1개소대 30여명이 화수리, 수촌리 등을 급습하여 가옥을 방화하고 인명을 살상하며 70여명을 체포, 고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일본군은 우정면, 장안면 내 25개 마을을 포위하고 주택을 방화하며 시위 주모자 200여명을 체포하여 고문하였다. 드디어 4월 15일 일본군은 제암리 주민 23인을 제암리교회에 가두고 총살, 방화로 순국케 하였으며, 당일 인접 마을 고주리로 가서 독립운동가 김흥열 가족 6인을 총칼로 살해하였다.



1905년 8월 제암리 이장이었던 안종후의 주도로 설립된 제암리교회는 씨족부락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난히 강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그러나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 신자나 일반인들은 일제의 감시 때문에 사건 현장에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희생자들의 시신은 며칠 후 사건을 전해들은 캐나다 의료선교사 스콜필드 박사에 의해 불탄 교회에서 유골을 수습하여 인근 공동묘지입구에 묻을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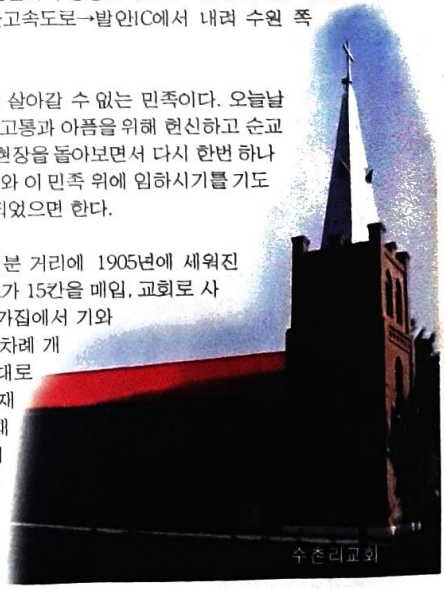
제암리교회는 방화로 소실된 후 그 해 7월 자리를 옮겨 다시 건립되었으며 1938년 현재의 위치에 기와집 예배당을 만들었으나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은 광복 후까지 기다려야 했다. 1959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3.1운동 순국기념탑'이 세워졌다. 1970년 9월에는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사회단체들이 속죄의 뜻을 담아 보내온 1천만엔의 성금으로 새 교회와 유족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우리의 3.1만세운동 순교현장을 일본인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국내여론 때문에 1983년 정부에 의해 기념관과 기념탑을 새로이 만들기도 했다.

현, 제암리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번지 옛 교회터에 3.1운동순국기념관과 함께 새로이 건축되었다. 시청각 교육실을 비롯하여 제1전시관, 제2전시관 그리고 23인 상징조각물, 23인 순국묘지, 3.1정신교육관 등이 있다.

제암리교회까지는 춘천에서 출발하여 중앙고속도로→만종분기점→영동고속도로→호법JC→안산분기점→서해안고속도로→발안IC에서 내려 수원 쪽 국도로 약10여분 가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다. 오늘날 우리의 선현들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고 순교했던 산 교훈이 담긴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제암리교회에서 20여분 거리에 1905년에 세워진 수촌리교회가 있으며 1907년 초가 15칸을 매입, 교회로 사용했던 초가집 한 채가 있다. 초가집에서 기와지붕으로 다시 초가지붕으로 수차례 개량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원형대로 초가집으로 복원되어 지방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제암리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되면 함께 둘러볼만한 좋은 곳이기도 하다.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인트로'단계 3기모집)"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달만에 입이 열린다!' '이미 훈련 수료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100% 등록한다'

1. 개강일시: 2006년 1월 5일(목) 오후 6시50분(시간엄수)
2. 기 간: 1월 5일-2월 3일 (매주 월 화 목 금 7:00-10:00P.M.)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 48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인트로단계', 교재 "Interchange(intro)"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 교회' (교통편: 카롤 25번, 23번, 26번 버스)
5. 본훈련소는: ① 초 6년 중·고등학생을 참여만하면 영어컴플렉스 해결!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초등 생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영어선생님, 유학준비생, 주부들이 한자리에서!
③ 회화 공부하다 포기하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곳
④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은 분
⑤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학습 기본기도 습득할 수 있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자녀와함께 오시면더욱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12월 27일(화)까지(선착순 42명) (T.264-0691, 011-386-6239)
7. 공개 설명회: 12월 17일(토) 오후 5시-6시
* 훈련생 소감문이 '춘천 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 (http://www.chmchurch.org/main.htm)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 꿈이있는 선교 언어훈련원 -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삶

감사와 순종의 삶

이번 기독기업체 탐방은 강원시스템 김정호 집사(춘천중부교회) 편입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1994년 어느 날 잔뜩 술을 먹고 교회 문을 두드린 김 집사가 김덕용 목사(춘천중부교회)에게 한 말이다. 10년간 다니던 롯데 케논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는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강원시스템을 차렸던 것인데 그동안 함께 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5명의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찾아 다른 회사로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후 6개월간 아무 사업도, 수입도 없이 혼자 사무실만 지키다가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따라 출석만 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던 것이다.

김정호 집사(1958년생). 그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었다. 늦둥이로 출생한지 몇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아버지'라는 말을 해보지 못하고 자랐다. 세분의 누님은 출가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김 집사는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고 그로 인해 더욱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때 그렇게 뼈저리게 외로움을 맛보았는데 이제 또 다시 그런 외로움에 몸서리쳐야 하다니...

김 집사의 망한 것 같다는 고통스러운 말에 김 목사는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했다. 바로 이때가 김 집사의 인생이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계기이다.



김 집사의 어머니는 김 집사가 어렸을 때 그의 이름을 무당에게 팔았다. 그가 탯줄을 감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어렸을 때 그의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당이 작두 위에서 뛰는 것과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찾기 위해 무당이 깊은 물로 뛰어 들었다가 아이를 건져낸 것이다. 그런 시절을 보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는 놀라기만 하다. 떡 장사를 하는 어머니 힘으로는 김 집사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당시 학비를 지원해주는 아펜젤러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아펜젤러선교회에서 주는 이 장학금은 교회에 다녀야 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따라서 김 집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비록 어머니가 무당을 찾고 김 집사의 이름을 무당에게 팔았지만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학교 때까지 아펜젤러 장학금을 받았던 김 집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군 위탁장학금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들어가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김 집사. 군대에서도 교회에 나갔으나 1982년에 중사로 제대한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군에서 제대한 그는 롯데 케논에서 10년간 근무하였는데,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열심히 배우고 근무한 결과로 엔지니어와 영업을 통해서 수많은 표창을 받게 되었다. 춘천지점이 생기면서 지점발령이 난 그는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인맥을 쌓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때 얻은 가장 귀한 인맥은 바로 아내 강순자 집사이다. 강순자 집사를 통해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구 동생이었던 강 집사를 자신이 일하던 옆 건물 건축사무소에 취직시키면서부터 3년간 연애 끝에 그녀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조건이 있었듯이 강 집사를 아내로 맞는 데에도 조건이 있었다. 장모님이 세례증서를 요구하셨던 것이다. 보배 같은 강 집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김 집사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 교회가 현재 김 집사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 춘천중부교회이다. 비록 신앙생활을 재개하였으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 어렸을 때에는 반대하지 않던 어머니가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종가집이어서 제사가 많았다. 그런 종갓집 장손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할 리 없었다. 김 집사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아 주일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놀러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김 집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다. 바로 그의 입에서 "망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까지 몰고 가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신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복 받는 길임을 깨닫게 된 김 집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먼저 사무기기 소모품 사업을 하게 하시다가 컴퓨터 조달 사업에 뛰어들게 하셨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쌓였던 빚을 빠른 시간 안에 갚을 수 있었다. 특히 당시 대기업 컴퓨터가 조달 등록이 되지 않은 틈새로 중소기업 컴퓨터를 메출하게 되는데 그 메출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그는 교육기관과 관공서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내의 IT업계에서는 가장 메출이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돈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돈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만은 않다. 사업상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에 있으므로 주일행사에 참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께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사원들에게 가장 좋은 회사, 더불어 크는 회사, 급여를 가장 많이 주는 회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이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그날 이후로 그의 가정도 수많은 복을 받았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믿으며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셨다. 또한 누님 세분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 강도 높은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김 집사는 자신의 멘토로 주저함 없이 목사님을 꼽는다. 신앙생활도 사업도 목사님과 상의하며 헤나간다. 현재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성경번역선교회(GBT) 사역도 선교와 나눔을 강조하는 목사님의 권고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대학1년)은 선교회 활동을 하며 단기선교를 꿈꾼다. 일어한 환경 속에서 살던 김 집사가 초등학교 때 품었던 소원대로 사장이 된 것과, 온 가족이 주님께 사용되는 기쁨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결론이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강사 승 태 권 목사 (서울제일교회)

심령부흥대성회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 일 시: 2005. 12. 11(주일)~14(수) 새벽5시 저녁7시

▶ 장 소: 춘천은혜교회(공지천 골프연습장 뒤)

▶ 문 의: 은혜교회 033)241-4315

은평교회 최승호 목사 010-8782-8750

장로교연합회

2005 정기총회

-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화목장로교회(문중식 목사/만천리 골프연습장 뒤)
- 문의 : 화목교회 253-6958

회장 김유식 목사(한신교회) 011-361-1995

총무 김종익 목사(광명교회) 019-261-5572

성령으로 세워져 부흥하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일교회(길동휘 목사)편입니다



춘일교회는 1978년에 창립, 현재로 27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영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수님을 닮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3대 슬로건을 가지고, 최근 석사동에 새로 교회를 신축하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춘일교회의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춘일교회의 시작

기자단이 춘일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평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북적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교회를 청소하고 단장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전도를 위한 예비모임이 진행되는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연스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6-47)



춘일교회는 신축된 교회 건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제공한다. 세련된 디자인 탓도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다른 건물보다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바라보는 이들에게 경이감을 준다. 춘일교회가 이곳 석사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지난 3번의 이사를 통해서다.

춘일교회의 담임목회자는 길동휘 목사. 길 목사는 지난 1983년 여름에 춘일교회에 부임했다. 춘일교회로서는 5대째의 목사. 6년 등안 담임 목회자가 5번째 바뀌었다고 하면 사연(?)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임한 이후 길 목사는 현재까지 23년을 한결같이 춘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평생을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던가. 길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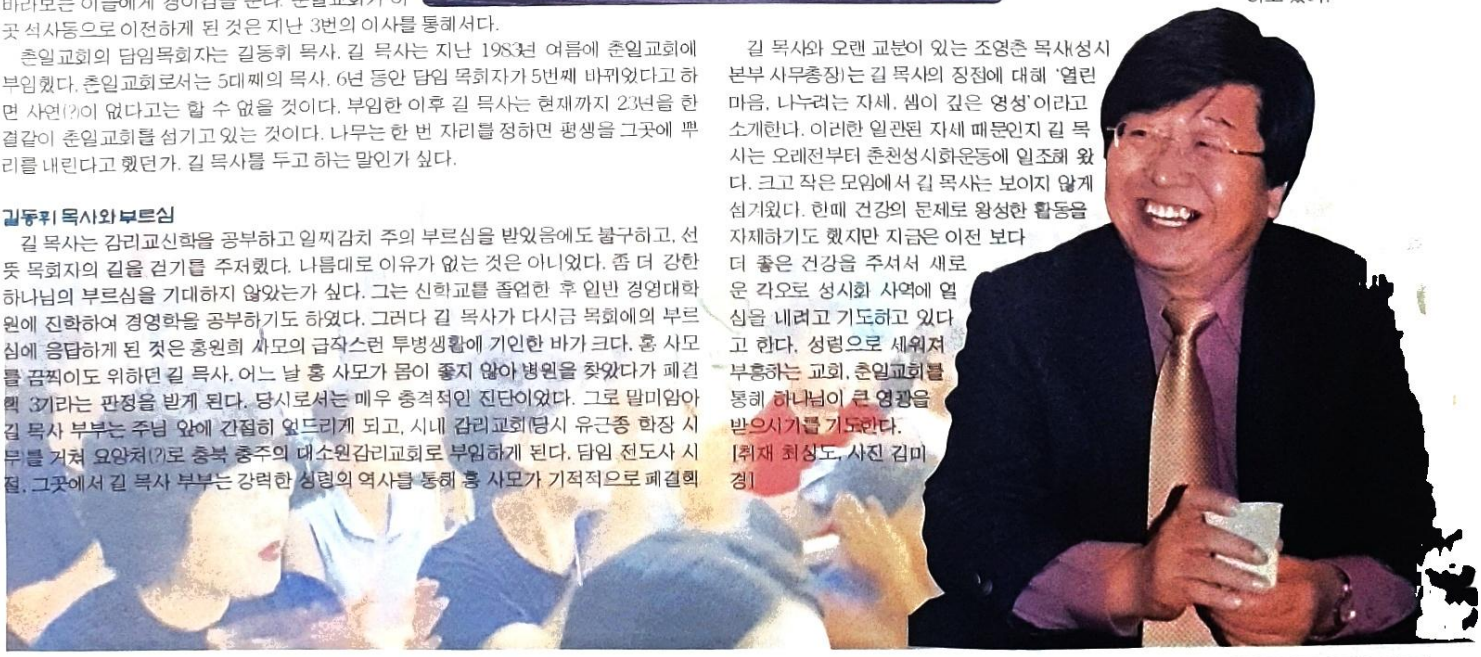
길동휘 목사와 부르심

길 목사는 감리교신학을 공부하고 일찌감치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목회지의 길을 걷기를 주저했다.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지 않았는가 싶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일반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길 목사가 다시금 목회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은 홍원희 사모의 급작스런 투병생활에 기인한 바가 크다. 홍 사모를 끔찍이도 위하던 길 목사, 어느 날 홍 사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폐결핵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진단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길 목사 부부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되고, 시내 감리교회(당시 유근종 학장 시무)를 거쳐 요안처(?)로 충북 충주의 대소원감리교회로 부임하게 된다. 담임 전도사 시절, 그곳에서 길 목사 부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홍 사모가 기적적으로 폐결핵을 치료받게 된다. 이러한 성령의 치유경험이 길 목사의 생에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자리잡으면서, 더 강력한 기름부음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첫 부임지로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대소원감리교회의 목회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길 목사.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지금의 춘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다.

부흥하고 있는 춘일교회 이야기

금번 석사동 교회당 신축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교회의 부지는 630여평. 저렴한 가격의 부지매입을 비롯하여 800여평(지하, 1-3층)의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기까지 주님의 신비스런 손길이 드리워져 있다. 2층 골조 공사를 마친 채 시공사 내부의 문제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전화위복, 동일한 건축비에 3층까지 신축하게 되는-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춘일교회는 교회 신축을 계기로 큰 부흥의 전기를 맞고 있다. 온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춘천 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일을 포함, 매주 전도특공대원들이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에서 처음으로 [빌립전도학교]의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빌립전도학교는 국내의 유수한 전도 프로그램인 이슬비전도, 아파트전도, 전도폭발 등의 장점만을 모아 집약한 것이다. 또한 성도들의 영성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영성훈련학교]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도되는 영성훈련학교는 웨슬리의 '성화와 완전'을 모티브로 깊은 영성 체험을 도모하고 있다.



길 목사와 오랜 교분이 있는 조영춘 목사(성시본부 사무총장)는 길 목사의 장점에 대해 '열린 마음, 나누려는 자세, 쉼이 깊은 영성'이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일관된 자세 때문인지 길 목사는 오래전부터 춘천성시화운동에 일조해 왔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길 목사는 보이지 않게 섬기었다. 한때 건강의 문제로 왕성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전 보다 더 좋은 건강을 주셔서 새로운 각오로 성시화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성령으로 세워져 부흥하는 교회, 춘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취재 최성도, 사진 김미경]

교경협의회

◆ 신 임원

회 장	정상문 목사	(동원감리교회)
부회장	이준일 목사	(베드로순복음교회)
	원종국 목사	(제일감리교회)
총 무	김혜영 목사	(중앙장로교회)
서 기	이병철 목사	(주향장로교회)
회 계	정명훈 목사	(예강장로교회)

교역자연합회

◆ 신 임원

회 장	최현묵 목사	(남춘천침례교회)
부회장	한 균 목사	(평화감리교회)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교회)
총 무	백낙영 목사	(남부제일감리교회)
서 기	김성수 목사	(열방순복음교회)
회 계	염동권 목사	(호산나장로교회)

소개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1.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

구세군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배 한척이 파선당하여 난민들이 생겨났다. 구세군 사관 조셉 멕피 정위가 이를 안타까이 여기며 도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자신이 영국 리버플에서 보았던 부둣가에 놓여있던 자선을 위한 "심슨의 솥"을 기억해냈다. 바로 그 다음날, 멕피 정위는 시당국으로부터 오클랜드 부둣가에 솥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솥을 걸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탄절에 불우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한 사관의 깊은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19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추운 겨울 이웃돕기운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모든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타고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이들에게 이웃사랑의 절실한 필요성을 되살려주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구세군 활동과 자선냄비

구세군은 기독교 교회인 동시에 사회봉사단체로서 세계 119개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08년 우리나라에서 활동이 개시되어 선교와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사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 명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선냄비라 할 수 있다.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세계적 공항이 시작되던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조셉 바아(한국명:박준십) 사관이 서울 명동거리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불우이웃을 돕게 되었다. 그해 명동을 비롯해 서울 시내에 20여개의 자선냄비를 설치하여 당시 화폐로 812원을 모금하였다. 이 운동은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하며 각 시대마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구세군 사회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춘천에서는 1955년 구세군 춘천교회가 시작된 이래 올해(12월 14일 명동에서 시작)로 50년째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게 된다.

한국구세군의 사회사업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실직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일과 HIV/AIDS 예방 및 복지사업, 임환자 호스피스센터로까지 확대 진행되고 있다. 구세군에 속한 사업장은 교회가 244개, 전문복지사업소 103개소이며 그 외에도 각 교회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있다.

3. 1928-2004년 다양한 자선냄비

-구세군 자선냄비: 종을 치며 "불우 이웃을 도웁시다"를 외치는 거리모금운동
-롤케이트 모금: 어린이 심장병 수술과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운동
-인터넷자선냄비: 일년 12달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모금운동
-월 2000원 사랑: 한번만 하는 기부는 아쉽다!! 매달 꾸준히 할 수 있는 모금운동
-핸드폰· 카드기부: 편안한 방법으로 기쁘게 기부할 수 있는 모금운동
-각종캠페인: 여러 포탈사이트와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모금운동에) '맘짱캠페인', '희망나무 캠페인' .....

4. 2005년 사업계획

1) 저소득시민 구호사업 2) 심장병 의료지원 3) 복지시설구호 및 지원 4) 시설신축 및 노후보강 5) 재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호사업 6) 청소년 문제예방 및 치료 7) 노숙인 및 실직자를 위한 재활지원사업 8) 에이즈 및 말기 암환자를 위한 은영 사업 9) 결식아동 지원 및 조선족, 고려인 심장병 어린이 치료지원(볼게이트) 10) ARC 사업(마약, 알콜 재활지원 사업)

[금 이제우 사관 033)261-8008 http://salvationarmy.or.kr
후원계좌: 농협032-01-176270, 조흥304-01-153023 예금주 구세군]

영혼의 양식

비전의 사람

창 50:15-21



김 동 부 목사(춘천성산교회)

2002 한 · 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응원이 참 돋보였습니다. 그때 센스 있는 특별한 문구를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꿈을 자기 멋대로 꾼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장로교 요리문답 제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는, 그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이요, 야망은 허황되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꿈은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내일, 미래를 바라보았기에 현실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현재 꿈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을 때에,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듯이, 꿈을 품고 늘 살아야 그 꿈이 자라게 됩니다.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4. 현실에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집에서도, 앙을 치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감옥에서 신세타령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그 영화를 누리지 않고, 전국을 시찰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실할 때,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하시는 일에 불만할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한국 아가피아 2005. 11. 29(화)

강원지부 출범



●강원지부장 : 김 성 호 목사(강촌감리교회)
●간 사 : 이 은 미
●문 의 : 011-372-9100

'아가피아'는 AGAPE와 UTOPIA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다. '아가피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므로 하나님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초대교회의 부흥과
사랑을 꿈꾸는 교회

담임목사 조 영 호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25번지 8/2
☎033)251-2354 / 011-369-2354 http://ccc.oc.ijesus.net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자

12월에 주 예수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어린 시절 춘천엔 눈이 많이 왔다. 의암호도 꽝꽝 얼어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지치곤 했다. 다시 눈처럼 포근하고 하얀 사랑의 춘천을 보고 싶다. 추위를 녹인 신나는 어울림이 있는 춘천을 보고 싶다. 12월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영혼을 울리며 한 가족처럼 따뜻한 식탁이 되는 계절이고 싶다. 우리 가슴을 열며 이웃을 품으며 팔찌을 끼고 함께 가자.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 가난해지는 성탄이 되 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한 가난(가난이 아니다)에서도 자기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교회는 교회당을 아름답게 짖는 일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자기 교회당을 짖는 일과 함께 이웃 교회의 교회당을 함께 지어야 한다. 성시화는 그런 것이다. 주님은 부요한 것에서 나누어 주므로 자기도 부요하고 남도 부요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전혀주신 헌신된 사랑이다. 우리의 교회당은 없어지고 너희들의 교회당은 있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넘치는 12월을 보고 싶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눅18:22)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영생을 얻은 자인 우리는 때론 이런 삶도 살아야 한다.

처음 아이와 결연을 맺은 것은 5년 째 그 때 저는 혼자서 생활비 30만원을 가지고 매달 집세를 15만원씩 내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머지 15만원에서 공과금을 빼고도 아이와 나눌 2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번은 돈이 모자라 한달은 후원을 못한 적도 있지요. 5년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살림은 좀 낫기도 하고 그보다 못한 적도 있지요. 아이를 후원하는 2만원 때문에 고민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다른 곳에 후원하는 북한 돕기 후원금은 잠시 끊을까 하고 요즈음 하루건너 하루씩은 고민을 합니다. 우선은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휴대폰을 정지시켰습니다. 휴대폰보다는 후원해야할 북한이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제 아이는 토실토실한데 북한의 아기들은 분유 먹기도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차마 끊지를 못합니다.(어느 후원자의 이야기 중)

적어도 이 12월에는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월드비전 등등에라도 후원해 보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3-48)



상처를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사랑하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도 해 보자. 형제에게 문안이라도 해보자. 부끄럽지만 세리와 이방인이라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12월에는 주님처럼 되어야 한다.

성폭행 당하고 임신한 소녀 리이젤. 그녀는 신앙 양심상 낙태할 수 없어 딸을 낳아 입양시켰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된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경로를 통해 생모 소재를 파악한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딸은 자신이 성폭행 당한 불행한 아이로 태어난 것을 양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딸도 낳았어요." 그러나 리이젤 목사는 딸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2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딸이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딸은 친모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예수를 소개했다. 그제서야 리이젤 목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던 증오가 녹아내렸다.(어느 목사의 글 중)

미운 자들에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소원한 자들에게 문안하러 가자. 사랑하러 가자.

[편집부 이영규]



예 향

〈요새형 교회〉

어느 서구교회에 젊은 신자들은 없었고, 대부분이 다 70-80세가 넘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꾸 흘러가면서 4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새 신자가 와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남은 교인묘지가 4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조자는 이런 교회를 '요새형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의 특권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고 경계하는 태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뒤에 위치

주식회사 디티피아 DTPI
"주님만이 내의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되십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 포 / 토 / 에 / 세 / 이 /



한 해를 보내는 마음

부끄러움과 비탄의 파리한 삶을
묵은 달력을 찢듯이 그렇게
없앨 수 만 있다면,

12월 31일 자정에
송년 예배 같은 것으로
한 해의 슬픔과 분노와 미움을
씻을 수 만 있다면,

코를 풀 듯이
답답한 마음들을 풀 수 만 있다면,

연을 날리는 아이들처럼
한 번의 숨으로 넘실이같은 생활을 치켜올릴 수 만 있다면,

낡은 신발 짝을 버리듯이
한 해의 나쁜 기억들을 버릴 수 만 있다면,

시. 허 태 수 목사(성암감리교회)

그래서 우화등선(羽化登仙)한다면,
그래서 대나무 밭에 달이 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가까워진다면.

행 사 안 내

▣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

♣ 아동- "우리 아이 정서지수 키우기"
1. 개강: 2005. 12월 26일(월)
2. 내용: 행복한 책 읽기, 신나는 글쓰기, 공부 즐기기, 내가 하고 싶은 것 함께 찾아가기, 엄마와 아이와의 미술놀이

♣ 부모- "아동양육 방법 배우기"
1. 개강: 2005. 12월 5일(월)
2. 내용: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나와 우리 아이 진로찾기, 수험생 부모 스트레스 제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APT교육(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 실무자 -"부모교육 및 상담실무 배우기"
1. 개강: 2005. 12월 5일(월)
2. 내용: APT교육(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공개강좌-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교육 분야 이론과 실제"
1. 개강: 2005. 12월 1일(목)
2. 내용: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음악·미술 모래놀이치료, 부모교육, 우리 아이, 독서와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3. 문의 : (033) 1391

▣ 월드비전 ▣

♣ 2005재가대상자 및 저소득아동가정 김장김치 지원사업
1. 일시: 2005년 11월 22일(화)~12월 7일(수)
2. 장소: 복지관
3. 대상: 재가대상자 130가정, 등록아동 400명
4. 주최: 월드비전자원봉사자리더회
5. 후원방법: 1)김장김치후원- 1통당(5kg), 배추15포기(후원시 방문하여 대상자 가정으로 전달)
   2)후원- 조흥 712-01-077790 월드비전
6. 후원시기 : 11월 22일(화)~12월 6일(화)

♣ 노인대학 종강식 및 졸업식
1. 일시: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30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3. 내용: 노인대학 2005학년도 수료식 및 졸업식
4. 주요내용 : 강촌 기차여행

♣ 제16회 월드비전 춘천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저녁 7시
2. 장소 : 춘천시민회관
3. 주제 : 행복한 크리스마스
4. 문의 : (033) 254-7244

사랑에 빚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 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 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88052
우체국 20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책 소 개

『선물의 의미』



글. 춘천명안교회 고재만 목사

폴 투르니에 저, 오현미 옮김, 도서출판 진흥, 2004.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다.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것은 분주하고 들뜨기 쉬운 때이지만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와 분위기에 맞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폴 투르니에의 「선물의 의미」이다.

폴 투르니에는 1898년 5월 1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1986년 10월 7일 88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내과의사, 강연가, 저술가, 임상심리학자, 문명비평가 등으로 활동했다. 그 중에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로서, 기독교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그가 63세 되던 해인 1961년에 저술한 작품이다. 이 책에서 투르니에는 "선물의 의미"를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인과 연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선물의 의미를 섬세한 필치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는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욕망과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보편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선물을 갈망한다. 선물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선물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현대처럼 인간관계가 비인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물의 의미'도 왜곡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사랑의 선물인가 아니면 거래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공물인가를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 그래서 바른 의미를 찾도록 돕고자 함이 이 책을 쓴 동기라고 생각된다. 그는 선물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모든 선물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 자기 자신을 주고 싶다는 보편적 욕구의 증표라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러나 그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이 땅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복음(하나님이 선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은 결코 현실로부터의 비약이 아니다. 오히려 이 현실 세상에서 나타나야 할 삶인 것이다.

이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선물을 해야 하는 부담스런 절기가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주고받는 때가 되기를 바란다.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천일기획(디자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T.255-5722 F.256-5722



♡아가피아 수료식



아가피아는 11월 10일(목) 오후7시30분 나눔성결교회(타임목사 피종호)에서 수강생들과 가족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가피아 제107, 108기 독서교사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지난 6월 16일부터 개강하여 17주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번 아가피아 독서교사과정에서는 약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수료를 하였다.

♡기독교연합회 2006년 신임 임원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1월 9일(수) 오전11시 한미정에서 "2006년 첫 임원회"를 통해 상견례를 하고, 2006년 중점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다. 이날 국회의원 허천장로도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 선교단체연합모임



선교단체협의회(위원장 피종호목사)는 11월 16일(수) 오전11시 춘천IVF 회관에서 예수전도단 주관으로 춘천지역의 선교단체연합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선교단체는 예수전도단, CCC, IVF, JDM, UBF, SFC, 한사랑선교회 등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특별건강세미나



"특별건강세미나"가 11월 16일(수) 오후1시30분 원드비전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에 관심 있는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강사 송기택목사(한국 전인치유선교원장)는 디스크, 요통, 견비통, 각종 장부질환 통증치료와 귀납 통해 보는 건강상식, 대체의학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송기택목사는 CBS TV건강플러스에도 매주 마다 출연하고 있다.

♡2006 재직임명을 위한 평신도 영성수련성회

2006년 재직 임명을 위한 평신도 영성수련성회가(주최: 강원노회 춘천시찰) 11월 13일(주일) 오후7시30분 춘천은혜장로교회에서 많은 재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사로는 송태권목사(서울제일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 춘천기독교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



2006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가 11월 3일(목) 오전11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천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연합회 회원, 선교단체 대표 등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경건예배후 2부 회무에서는 회칙수개정 및 총무·감사·회계보고 임원선거가 있었으며 차기회장에는 박상호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가, 부회장에는 교단별 순서에 따라 최현묵목사(남춘천침례교회)가 선출되었고, 총무에 박인관목사(춘천광염교회), 서기 최상도목사(사암성결교회), 회계 마철규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가 각각 추대됐다.

♡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혁신도시 춘천유치를 위한 특별연합기도회'를 11월 27일(주일)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며 혁신도시 춘천유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기도 이춘원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성경봉독 최상도목사(사암성결교회), 선교에는 이원호목사(소양성결교회)가 "여호와는 내편이시라(시 118:5-17)"로 말씀을 전한 후,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축도를 하였다. 2부에는 총무 박인관목사(광염감리교회)의 배경설명 후 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가 제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춘천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당한만큼 이제는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부도시 춘천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3부 특별기도회는 사무총장 조영춘목사(예광교회)의 인도 속에 춘천성시화를 위해 교역자연합회장 김유식목사(한신장로교회)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이학규장로(석사감리교회)가 기도를 하였다. 이날 약 1,000여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앞으로 12월 1일에 현지실사가, 4월에는 선정이 있게 된다.

♡ 강원서지방 성결인대회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강원서지방 춘천지역 연합성회가 11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새벽5:00, 오전10:30, 오후7:30 세 차례로 소양교회에서, 성결인대회가 9일(수) 오후7:30 춘천중앙교회에서 열렸다. "만민에게 성건의 복음을!(막 16:15)"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안산세능력교회 김동성목사와 충주성광교회 김성호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대표 김명호목사)은 11월 21일(월) 오후1시~5시 춘일감리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무료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 약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호목사, 김건우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강의를 했다.

♡ 교경협의회 정기총회



춘천교경협의회(회장 최현묵목사)는 11월 23일(수) 오전11시 춘천경찰서 소예배실에서 교경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예배 후 회칙개정 및 2005년 사업결산보고 후, 이어 임원선거가 있었다. 회장 장상문목사(동원감리교회), 부회장 이춘원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와 원종국목사(제일감리교회), 총무 김혜영목사(중앙장로교회), 서기 이병협목사(주향장로교회), 회계 장명훈목사(예강장로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기독교연합회 임원회



11월 23일(수) 오후3시 춘천제일장로교회 당회실에서는 "성탄추리점등식과 혁신도시 춘천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류종수 춘천시장은 상견례를 위하여 함께 참석하여 시와의 협력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춘천 교역자연합회 정기총회



교역자연합회(회장 김유식목사)는 11월 30일(수) 오전11시 남춘천침례교회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 최현묵목사, 부회장 한균목사, 부회장 피종호목사, 총무 백낙영목사, 서기 김성수목사, 회계 염동권목사가 각각 추대됐다.

2006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신임원

- 회 장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 수석부회장 최현묵 목사(남춘천침례교회)
- 부 회 장 박한병 장로(장로연합회/춘천중앙성결교회)
- 총 무 박인관 목사(춘천광염감리교회)
- 수석부총무 정재호 목사(늘사랑장로교회)
- 부 총 무 송문식 목사(은성장로교회)
  김기기 장로(석사감리교회)
- 서 기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 회 계 마철규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성탄 트리점등식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후7:30

장 소
: 명동사거리 중소기업은행 앞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광 고

사 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는데

조영춘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예광교회)

사람의 이름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 사람마다 담긴 인격과 삶의 수고와 헌학이 그 짧은 이름은 명예스럽게 혹은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을 종종 본다. 흡족하고 감동적인 사람은 그 지나간 자국까지도 뒤돕아보면 향기가 남기 마련이 아닌가.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은 남긴다"는 옛말이 더욱 생각난다.

12월 지금 각 기관에서는 임원단 또는 회장진으로 수고하셨던 귀한 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 이름으로 바뀌는 시기이다. 하나 이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참모습 곧, 그 속에 담긴 속사람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나갔음에도 붙구하고 함께 땀흘려 수고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그능이라도 더 힘께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쉬움보단 더 훈훈한 정이 남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까.

그러나 이떤 경우에는 회무를 마친 후 감정적 처리 등이 잘 안되면, 때론 허탐감이나 마음의 앙금들이 남을 수 있다. 이 점은 떠나는 분이나 있는 분 모두에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누가복음 9장, 10장을 보면 주님은 12명의 제자들과 70문도를 각동 각처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던 말씀 속엔 공히 강조하시던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다보면 때론 오해와 멸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고난을 당하거나 영접 받지 못하는 섭섭함에 마음과 기분이 상하여 질 때 저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두 군데 가 다 똑같다. 즉 영접지 않은 마음에서 나왔을 때는 그 마을의 붙은 먼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떨어 버리라는 것이다. 이는 그 도시의 완악함과 고집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또 신선한 새 마음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마음에는 새로 도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 땅의 완악함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을 하나님께 고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새 습을 담을 새 부대와 같은 신선한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 때문에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 막을 수 있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발의 먼지를 훌훌 털며 이 동네의 일은 뒤로 하고, 다시 새 마음을 품고 힘차게 도전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갚은 마음의 배려가 아닐까?

대체적으로 일에 대한 수고를 많이 하신 지도자일수록 아쉬움과 섭섭함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신의 신발에 묻었던 먼지와 앙금들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등역자로서 더욱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더 귀한 향기를 내며 나아가자.

❀ 알려드려요

◆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12월 3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의실

2) '특리원커즈 수련회(스텝진 수련회)'
일시: 12월 26일(월)~28일(수) 주제: 누가복음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임원단 수련회'
일시: 12월 19일(월)~22일(목) 장소: CCC 아카데미 센터

2) '2005 청년 대학생 금식수련회'
일시: 12월 27일(화)~30일(금) 장소: 공림수도원
주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6:8)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 JDM

1) '대학생 겨울 수련회'
일시: 12월 27일(화)~31일(토) 장소: WDTI

2) '춘천지구 전체 종강예배'
일시: 12월 8일(목) 오후 7시
장소: 한림대학교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IVF

1) '강원 IVF 총회'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5시 장소: IVF 회관

2)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12월 12일(월)~14일(수) 문의: 252-5200

◆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어천이 전도자 훈련'
일시: 12월 26일(월)~30일(금) 4박 5일간 숙박
장소: 어린이전도협회 지정훈련소
마감: 선착순 30명, 11월 30일까지 등록비 무료(이후 10만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net/cefch]

◆ GBT

1) '25회 캠프 위클리프'
★국내팀
일시: 2006년 1월 9일~26일(3주간)
장소: 대전침례신학교
비용: 60만원
★네팔팀
일시: 2006년 1월 4일~25일(21박22일간)
장소: 네팔, 카트만두 비용: US$ 1,200
대상: 선교관심자 및 현신자
내용: 언어훈련, 선교사 기본훈련, 문화체험, 현지적응훈련, 인터뷰 등
문의: GBT춘천지부 252-3927 김대원 간사 033@gbt.or.kr

◆ 장로교연합회 2005년 정기총회
일시: 12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화락교회(만천리)
문의: 253-6958

◆ 목회자 산상기도회
일시: 매월 1일 오후 11시/매주 토요일 오후 9시30분
장소: 대봉산 (거두리 버스 종점에서 집합)
문의: 010-3191-8750 최승호 목사(춘천은평교회)

◆ 기아대책본부 춘천지부 창립예배
일시: 12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문의: 254-6401

◆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2기 개설
일시: 2006. 2. 22(수)~3.22(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
회비: 10만원
구좌번호: 농협 301036-56-035555 예금주: 민병임 (지원시 이름으로 입금)
문의: 김희숙 011-363-0926, 민병임 018-352-1968, 안금자 010-7390-9192

◆ 「가정 · 성폭력 전문 상담사」인증 교육생 모집
여성가족부인정(100/64시간 법정이수)
일시: 2005.11.28 ~ 2006.1.17 (오후 6:30~10:30)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성수고교 옆)
문의: 춘천제일장로교회 (033)241-4363
010-6772-3377 (황병호장로, 강원대 임산공학과 교수)

◆ 심령부흥대성회
강사 : 강사 송 태 권 목사 (서울제일교회)
일시: 2005. 12. 11(주일)~14(수) 새벽5시 저녁7시
장소: 춘천은혜교회(공지천 골프연습장 뒤)
문의: 은혜교회 033)241-4315
은평교회 최승호 목사 010-8782-8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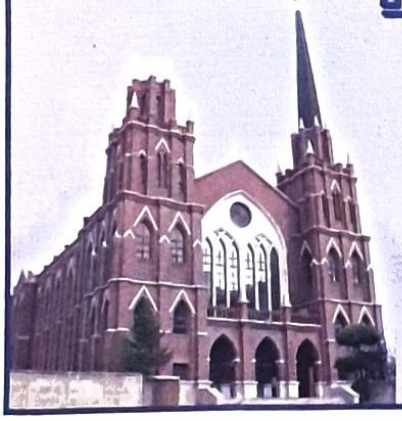
◆ 2005년 성탄트리 점등식
일시: 12월 9일(금) 오후 7:30 장소: 춘천명동 기업은행 앞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문의: 256-1260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감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장로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닮교회	임신교회	주천원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강원시스템	천일현수막
퀘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투어
유원닭갈비	조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위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천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박 상 호 목사님의
춘천기독교 연합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 천 제 일 교 회
성 도 일 동



부 목 사 : 김병철 김명길 원로장로 : 이창룡
강 도 사 : 최지우 양성찬 시무장로 : 황병호 한남수 마철규 김주극 박동섭 전은풍 김정호 박성기 최경용 권승갑
협동장로 : 피영환 김진현
은퇴장로 : 김용호 이순훈 박두빈 심상우

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 / 홈페이지 : www.chjeil.org
교 회 : 033) 241-4361~2 당회장실 : 241-4363 Fax : 241-4364 친회실교 : 241-4365